

2개 현안 법률 국회 통과 위해 '분주' 행보

김관영도지사, 국회 상주하며 법안 필요·시급성 설득 작업 집중... 민주 박흥근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 지원사격 요청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관련 국토위 의원들도 찾아 나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발 빠르게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광법 개정이 반드시 올 상반기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에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



김관영 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은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 지난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

외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재정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주력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나가며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일정을 세세히 조개하며 대광법 개정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찾아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자녀 출산시 10년간 무이자

전북도가 광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지난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이에 올해부터 연간 1,000가구씩 2028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차 자녀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차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격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병원 "병원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병원내 장례식장내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 시 출입 불가·진료제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병원을 방문하는 환우를 포함한 모든 내방객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검역·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며,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밀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달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은 물론 진료제한을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다짐

전북도 감사관실, 올해 4개 업무추진 방향 발표

전북도가 2023년 감사관실 비전을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전라북도 구현'으로 정하고 4개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청렴전북 실현을 위해 △맞춤형 감사행정 구현 △도민체감형 감사 △능동적 공직문화 조성 △청렴 1등(도) 실현 등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도정성과 창출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먼저 민선8기 전북경제 선도기반을 마련하고, 도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특단의 경제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의 창업 및 인·허가 민원처리, 불필요한 규제, 기업발전·부담 행위 등 기업활동 저해요인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 특정감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5대 도정 핵심사업과 시군 역점사업 점검을 통해 도 및 시·군정에 도움을 주고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를 통한 사업 추진력을 견인함으로써 도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보 등을 사전조사하고 분석하여, 전라북도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분야 등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진행형 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최선을 다한다.

하반기에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소방 상하수도 및 대형 건설공사, 다중 이용시설 현장 중심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강화·견실시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계약상사 시 자재단가, 원가계산 적정여부,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함으로써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거해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재정 건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다. 2023년에도 공직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통해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 취약분야 등 복무관리 시각 지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민 눈높이를 충족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 금품수수, 도민 불편 및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갑질과 괴롭힘 없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 갑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갑질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 및 개선하여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정 혁신·도약을 위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정책수단과 역량을 활용해 집중 대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직 내 청렴방송 운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수단과 역량을 활용해 집중 대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모집	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방학특강(1~2월)과정 모집	환영
스피치·긴장해소·시낭송·웃음코칭·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통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인맥으로 즐겁게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겸임위원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연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시낭송지도사 등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p>* 강사 : 김정리(웃음코칭지도사, 레크리지도사, 스피치지도사)의 전문강사</p> <p>◎ 과 목 명 : 스피치기법과 리더쉽(원광대), 웃음코칭(우석대)</p> <p>◎ 모집대상 : 대학생, 일반인 남, 녀 누구나(남,녀,노,소)</p> <p>◎ 모집방법 : 선착순 각 25명 · 매주1회 야간수업</p> <p>◎ 등록방법 : ① 전화접수 ② 방문접수 ③ 팩스접수</p> <p>◎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우석:252-9601, 원광:850-5512)</p>		
<p>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